

##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계리 전문가 단체”

 한국보험계리사회	<b>보 도 자 료</b>			
	보 도	배포 후 즉시	배 포	2019. 3. 18

책임자	사무국 : 서영일 사무국장 ( 02-782-7440 )	총 3매
-----	--------------------------------	------

## 새롭게 변신해나가는 한국보험계리사회의 2020년 운영 방향

### I 개요

□ 한국보험계리사회(회장 이재민, 이하 계리사회)는 1963년 발족 이래 보험계리사\* 등 3천명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체로 성장해 왔으며, 그동안 회원 간 정보교류 외에, 보험계리 관련 연구,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 보험계리사는 수학·통계적 기법을 기반으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책임준비금(보험부채) 평가,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의 주요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초저금리 등 보험환경 변화 및 새로운 건전성기준(K-ICS) 및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가 과거와는 견줄 수 없는 새롭고 다차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계리사회도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계리사회는 2018년 3월 이재민 회장 취임 이후 회원 간 정보교류 확대, 자질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등 회원 서비스 제공에서 더 나아가, IFRS17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토론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 또한 2013년 국제계리사회(IAA)의 정회원 가입 이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IFRS17 관련 세부실무기준 등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파하는 한편, 한국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1년 국제계리사회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 하에, 계리사회는 2020년도 업무 추진 방향을 ▲ 회원 서비스 강화 ▲ 자율규제기구 역할 확립 ▲ 대·내외 위상 증진으로 설정하고, ‘IFRS17’, ‘국제’, ‘교육’ 및 ‘홍보’ 4개 주요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 계리사회는 회원의 Volunteer 참여하에 20개 위원회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회원들과 함께 상기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소 활동에 지장이 예상되어 일부 조정도 있겠으나, 계리사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회원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계리전문가단체’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0년도 업무 추진도

<b>비전</b>	<b>“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계리사회”</b>		
<b>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 서비스 강화</li> <li>▲ 자율규제기구 역할</li> <li>▲ 대·내외 위상 증진</li> </ul>		
<b>주체</b>	<b>회원</b> (Volunteer 참여)	<b>위원회</b> (주요 사업 주도)	<b>사무국</b> (체계적 지원)
<b>주요 업무</b>	<b>[IFRS17] 부문</b>		<b>[국제] 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IFRS17 도입 지원</li> <li>② 자율규제기구 역할 강화</li> <li>③ IFRS17 관련 교육, 세미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제 회의 적극 유치</li> <li>② 국제 교류 증진 및 협업</li> <li>③ 국제 활동 강화, 저변 확대</li> </ul>
	<b>[교육] 부문</b>		<b>[홍보] 부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육 시스템 선진화</li> <li>② CPD(지속적 전문화 교육) 제도 도입</li> <li>③ 제도적 근거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원관리 강화, 저변 확대</li> <li>② 대·내외 홍보 강화</li> <li>③ Volunteer 제도 활성화</li> </ul>

<별첨> 『2020년 한국보험계리사회의 업무계획』 1부. 끝.

<첨부>

# 2020년 한국보험계리사회 업무계획

## 1 [IFRS17] 성공적인 IFRS17 도입 지원

### 1 IFRS17 도입 지원, 자율 규제 기구 역할 강화

#### ① IFRS17 국제계리업무기준(ISAP4) 번역 및 K-ISAP4 채택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국제계리사회(IAA)가 상호 MOU를 체결하고 성공적인 IFRS17 도입을 위해 이를 지원·보완하는 국제계리업무기준(ISAP) 제정
- 이에, 국내 보험업계의 성공적인 IFRS17 도입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K-ISAP4 채택 추진
  - 기존 IAN T/F를 K-ISAP T/F로 확대·변경하여 ISAP 채택 관련 업무 관장 예정

#### ② 최적가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보험부채평가 방식이 결산 시점의 최선추정을 기반으로 시가 평가하는 K-ICS 및 IFRS 17 도입됨에 따라, 가정 관련 실무 책임자간 가정관리와 관련된 이슈를 ‘주기적’으로 논의하여 원칙중심적인 기준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 산출

### ③ IFRS17 관련 위원회 중점 사업 추진

- (보험회계위) IFRS17 용어해설집 편찬, 홈페이지 내 Library 시스템 구축, 국제계리사회 monograph\* 번역 및 교육 등
    - \* Discount Rates, Risk Adjustment, Stochastic modeling
  - (실무특별위) 작년에 이어 계리시스템, 위험조정, CSM, 수정 소급법 등을 주제로 한 '2020 IFRS17 실무 적용 사례집' 발간 예정
  - (K-ISAP T/F) IAA에서 제정한 IFRS17 관련 기준인 ISAP4 (IFRS17 보험 계약)와 실무 노트인 IAN100 번역 및 교육 실시 등
- ※ 본회 IFRS17팀을 지속 운영하여 IFRS17 사업 추진 및 관련 위원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 2 [국제] 국제 영향력 증진 및 교류 확대

### 1 사업 개요

- 한국은 IFRS17 Full Adoption 국가로서 IFRS17이란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적으로 제도 도입을 준비하며 추후 국제적으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이에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 국내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제적 위상 강화 추진
- 강화된 국제 영향력을 기반으로 국내 계리사들의 성공적인 해외 보험 시장 진출 지원

### 2 세부사항 및 추진계획

#### ① 국제 회의 적극 유치(IAA, AAC 등)

- (IAA총회) 2021년 상반기 국제계리사회(IAA) 총회를 유치하여 한국 보험 산업의 국제 경쟁력·우수성 등을 널리 전파
  - 2013년 IAA 정회원 가입 이후, 국내 개최 추진 중
  -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총회 위상을 한 단계 격상하고 본회 재정 부담도 완화
- (AAC) 2024년 아시아계리사총회(AAC) 개최 잠정 확정, 아시아 보험산업 선도 그룹으로서의 위상 강화

- 1999년, 2009년 EAAC(동아시아계리사총회, 현재는 AAC로 확대) 개최 이후 13년 만에 한국에서 재 개최 될 예정

## ② 국제 교류 증진 및 협업 추진

- 既 구축해온 선진계리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상호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 국제 영향력 확보
  - 국제계리사회(IAA), 미국계리사회(SOA), 미국손해보험계리사회(CAS), 캐나다계리사회(CIA) 및 일본계리사회(IAJ) 등 협업 추진
- 매년 개최 중인 SOA 협력 세미나를 벤치마킹하여 타 국가 계리사회와의 공동세미나, 해외인사초청 세미나 등 개최 추진
- 해외 근무 중인 인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의 전문위원으로 위촉·관리
  - 각 지역 계리사회 등과의 징검다리 역할, 이슈 조사 및 전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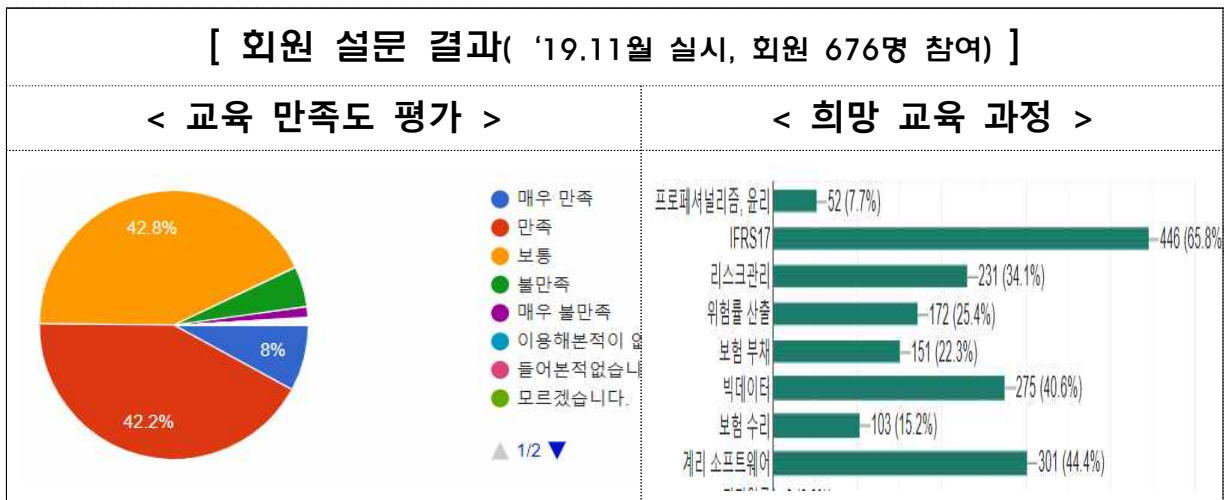
## ③ 국제 활동 강화 및 저변 확대

- 국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회의 적극 참가, 회원 참여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 등 국제 활동 인프라 확충
  - IAA 총회(상반기 : 벨기에, 하반기 : 캐나다), AAC(인도네시아), 동아시아계리세미나(일본) 등 참가
-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해외계리사(FSA 등) 인력을 활용하여 Volunteer 등으로 참여 장려

### 3 [교육] 교육 선진화 및 CPD 제도 도입

#### 1 사업 개요

- 전 회원을 대상으로 본회 교육 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 다수(50.2%)
  - 다만, 회원 교육 참여도가 저조하고 절반 정도의 회원이 본회 교육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실정
  - 또한 다수의 회원들이 실무 중심의 IFRS17 심화 교육, 계리 소프트웨어 실습 교육, 빅데이터 교육 등의 개설 요구



- IFRS17 도입 등 급격한 금융 환경 변화와 계리사 업무 영역 확대에 따라 계리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보수 교육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
  - 또한 3년 간, 다수의 신규 계리사가 배출될 예정이나 이들이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필요



※ 다만 2006년 12월 보험업무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3조(보수교육)가 삭제되어 학점 미이수에 따른 패널티의 부재로 계리사의 보수 교육 이수가 저조한 실정

### 최근 3개년 본회 회원 학점 이수 현황

구분	전체회원(단위 : 명)			교육이수회원(단위 : 명)			평균이수학점(단위 : 시간)		
		정회원	준회원		정회원	준회원		정회원	준회원
2019	3,124	1,419	1,705	1,265	533	732	18.7	17.8	19.3
2018	2,958	1,293	1,665	1,143	487	656	22.1	19.2	24.2
2017	2,700	1,215	1,485	1,433	521	912	22.4	21.6	22.8

## 2 세부사항 및 추진계획

### ① 교육 시스템 선진화

#### ①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 구축

-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에 다수의 회원(55.2%)이 찬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 편의성 확보

#### ② 회원 니즈 적합 교육 개설

- IFRS17 및 K-ICS 2.0 관련 교육 강화 : 新제도 도입 시의 경영 관리, 손익관리, 상품에 대한 이슈, 대응방향 및 경영관리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한 교육 과정 개설
- 계리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활성화 : '19년 3회 실시한 계리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을 보완하여 정식 교육 과정으로 도입

#### ③ 신규 계리사 합격자 의무교육 실시

- 본회 연수규정에 의거, 신규 계리사의 경우 연간 4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윤리 교육, 기본 개념 및 실무 교육, Career Path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 예정

## ②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제도 도입

### ① 연수 인정 교육 유연화

- 다양한 학점 채널 마련, 연수 질 향상 및 회원 부담 최소화
  - \* 인증을 받은 회원사 및 외부 기관(학계·연수원 등) 교육, 위원회 회의·작업반 참가 세미나 참석, 강의 등을 학점으로 인정
- 연수 인정 교육 유연화 : 인증을 받은 회원사 자체 교육, 외부 기관(학계·연수원 등) 교육 및 위원회 회의·작업반 참가 세미나 참석, 강의 등을 학점으로 인정
- 다양한 학점 채널 마련, 연수 질 향상 및 회원 부담 최소화

### ② 주체별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계리사회 : 연간 회원 교육 이수 내역 관리 시스템 구축, 연간 교육 미 이수자 피선거권 제한, 회원사 별 이수 현황 홈페이지 공시 등 회원 홍보 강화 必 및 CPD 이수자 교육 강사 기회 우선 제공 등
- 회원 :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주도적으로 CPD제도 활용
- 회원사 : 직원 채용 시 교육 이수 현황 제공(본인 동의 후, 회원사 요청 시)

## ③ 제도적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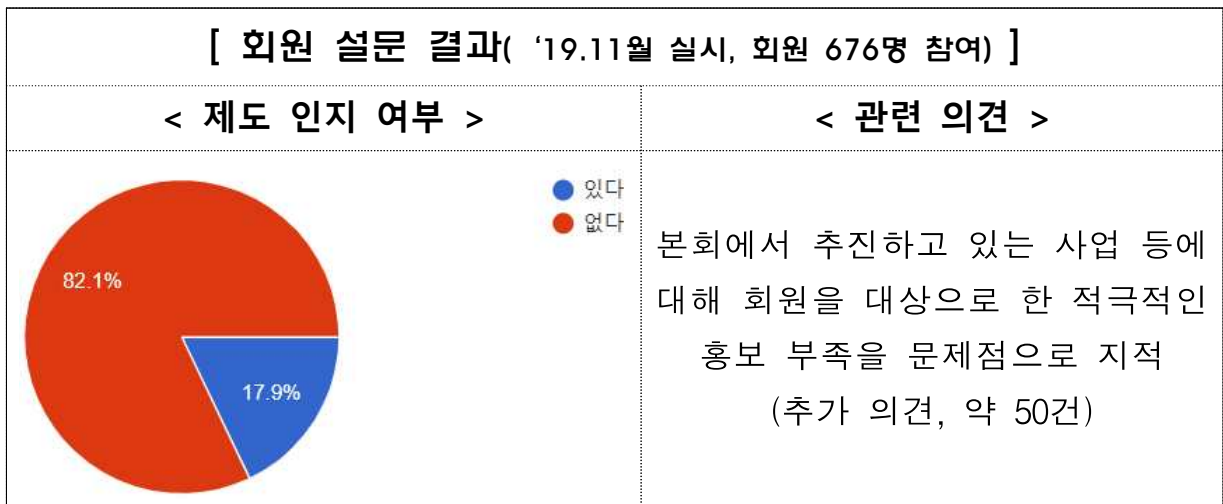
- 보수교육 의무에 관한 법령 근거 없이는 이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제한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수교육 의무 활성화 도모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수교육 의무화 조항 복원 추진

## 4 [홍보] 대·내외 홍보 강화 및 체계적인 회원 관리

### 1 사업 개요

- (회원관리) 개인·법인 회원 혜택을 강화·확립하는 등 회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회원이 주인인 계리사회 달성
- (홍보) 본회에서는 회원 소통·홍보 등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회원의 실제 참여 연계는 미흡
  - \* 홈페이지, SMS, 카카오톡 채널 및 Youtube 등
- 한 예로 본회에서 Volunteer 제도를 확립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였으나 대다수 회원들이 인지하지 못함



- 또한, 보도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외적 홍보 방안도 모색

### 2 세부사항 및 추진계획

#### ① 회원 관리 강화 및 저변 확대

- 구축된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회 전반적인 사항,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수시 홍보를 실시하고, 나아가 회원 Volunteer 참여 유도

- 2019년 회원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인·법인 회원 혜택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현실화 추진
- 신규 계리사 가입·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계리 관련 기관 대상 법인 회원 확대 추진
  - (개인회원) 정부 방침에 의해 800명(19~23)의 신규 계리사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 신입 교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
  - (법인회원) 계리법인·컨설팅사, 회계법인, 공제회, 은행, 증권사 등을 본회 법인회원으로 가입 유도

## ② 대내·외 홍보 강화

- 홈페이지 의견 수렴, 카카오톡, 설문조사, Youtube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회원에게 회 운영 사항, 추진 사업 등을 수시 홍보
  - 회원과의 소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쏠 회원 참여 독려
- 대학 캠퍼스 계리사(회) 홍보 실시, 계리사 시험 응시 장려 등
-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탭을 신설하여 대외적 본회 적극 홍보
  - 2020 운영 방향, IAA 총회 유치, CPD 제도 도입 등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예정

## ③ Volunteer 제도 활성화

- 해외 선진 계리사회 Volunteer 제도를 벤치마킹,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하고 회원 홍보 강화, 합리적 혜택 부여 등 실질적인 Volunteer 참여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 운영